

조지아 오키프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개발

임혜순* · 동페이

중국 연변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중국 연변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석사과정

요약

최근 현대인들은 삶의 질을 높이하고자 무엇보다 가치소비를 지향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문화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는데 특히 서로 상이한 예술분야의 융합으로 인하여 새롭게 탄생하는 복합적인 예술장르나 예술작품에 대한 선호도도 증가하게 되었다. 대중들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 문은 회화와 패션이라는 서로 상이하면서도 공통성이 있는 예술분야의 융합을 통해 보다 예술적인 이미지와 수공예적인 가치를 더한 패션디자인을 모색하고자 20세기 초 뚜렷한 독창적인 개성을 지니고 있는 모더니스트이자 페미니스트인 미국의 대표적인 화가 조지아 오키프의 작품을 패션에 적용하여 패션디자인 개발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오키프의 예술생애를 살펴보고 부동한 시기에 나타난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 조형적 특성을 '확대성', '반복성', '대칭 및 균형성', '평면성', '색채표현' 등 다섯 가지로 종합하였으며 이러한 특성을 패션디자인에 적용하여 표현하였다. 패션디자인에서의 '확대성'의 표현은 회화작품 모티브의 이미지를 추상적인 원형으로 재해석하여 의상의 앞중심 부분에 집중적으로 확대하여 표현하였고 '반복성'은 회화작품 모티브의 이미지를 불규칙적이며 반복적인 곡선으로 재해석하여 의상의 앞면에 표현하였으며 '대칭 및 균형성'은 회화작품의 모티브의 이미지를 대칭적인 문양으로 단순화하여 의상의 앞중심 부분에 좌우수직적인 대칭문양으로 표현하였고 '평면성'은 회화작품의 모티브의 이미지를 불규칙적인 타원형으로 간략화하여 의상의 여러 면에 표현하였다. 이러한 조형적 특성을 패션디자인에 적용하여 총 4벌의 작품을 제작하였는데 모든 작품 제작과정에서는 모직물을 주소재로 사용하였으며 문양의 표현에 있어서는 코바늘뜨기기법, 섬유펠트기법, 손자수기법을 이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양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다양하게 구성하여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색채표현'의 방법에 있어서는 오키프의 작품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한 대비색상사용과 유사색상사용의 두 가지 기법을 참고로 인접색상배색, 보색대비, 대비색대비, 무채색대비 등 기법을 사용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추구하였다. 본 연구가 의도한 것은 회화와 패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창의적인 패션디자인의 개발을 통해 현대인의 심미요구에 부합되는 패션디자인작품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주제어 : 조지아 오키프, 조형적 특성, 패션디자인

*교신저자: 임혜순, hshlin@naver.com

접수일: 2018년 4월 23일, 수정논문접수일: 2018년 5월 16일, 게재확정일: 2018년 6월 11일

I. 서론

20세기 초 미국은 시카고를 중심으로 새 출발의 분위기가 예술계 전반에 확대되었으며 미국의 현대 미술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기로,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와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한 회화의 자율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집단보다는 개인의 잠재력에 대한 신념으로 가득 찬 시대였다(Lee, 2005). 1905년에 현대사진작가인 알프레드 스티글리츠(Alfred Stieglitz)는 뉴욕 5번가 291번지에서 'Little Galleries of the Photography' (약칭: 291화랑)이라는 소화랑을 열었고 오귀스트 로댕(Auguste Rodin),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 폴 세잔느(Paul Cézanne),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등 유럽미술대가들의 작품을 미국에 처음으로 소개하였는데 이는 미국에 최초로 유럽현대미술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Kim, 2009).

1913년을 기점으로 뉴욕에는 상업적인 성격을 띤 새로운 화랑들과 전위적인 예술잡지들이 속출하였으며 새로운 예술가들의 모임이 형성되어 '291화랑'과 경쟁하였다. 화랑의 상업주의를 배격하고 순수성을 지키려했던 스티글리츠는 미국의 재능 있는 화가들에게로 눈을 돌려 '291화랑'을 그들을 위한 모임으로 만들어 나갔다. 이러한 시점에서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 1887~1986)의 등장은 스티글리츠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오키프의 작품은 스티글리츠에 의하여 소개되고 인정을 받으면서 점차 예술계의 주목을 받았다(Alm, 1995).

오키프는 미국 사실주의 회화 전통에 바탕을 두면서도 추상적 특성을 지닌 독특한 회화 영역을 개척하였다. 그의 작품은 묘사력과 상상력이 교묘히 결합된 구상과 추상의 공존이라는 특성을 이루었다. 오키프는 자신의 거의 모든 생애를 자연과 더불어 살았으며, 그 자연현상 속에서 여성 특유의 감각으로 생명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것을 예술

적인 형태로 이미지화 하였으며 특히 꽃을 주제로 비구상에서 구상으로, 미시적 세계에서 거시적 세계로의 변화를 추구하며 생명과 물체의 본질을 유기적 형태로 표현하였다(Yang, 2002).

그동안 오키프의 작품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꾸준히 행해왔으며 회화영역뿐만 아니라 타 분야에도 다양하게 영향력을 미쳤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Kim and Kang(2004)은 오키프의 작품 중 꽃을 형상화한 작품을 통한 메이크업 연구를 하였고 Kim(2015)은 오키프 작품 중 꽃 이미지를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및 제작연구를 하였으며 Jang(2016)은 오키프의 회화작품의 조형성과 예술적 감성을 재해석하여 네일 디자인 작품을 제작하였고 Kim(2017)은 오키프 회화의 꽃 이미지에 나타난 미학적 특징을 분석하여 웨딩헤어 장신구를 디자인 및 제작 하였다.

이상과 같이 오키프의 작품 관련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패션디자인과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며 특히 패션디자인개발 관련 연구는 더욱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오키프의 작품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작품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분석 및 응용하여 현대인의 감각에 맞는 독특하고 개성 있는 패션디자인을 수공예적인 측면에서 개발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며 타인의 연구에 참고자료로 사용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에 의한 이론적 연구와 작품을 토대로 한 의상디자인 및 제작의 실천연구를 위주로 하였다.

II. 오키프 작품에 대한 일반적 고찰

오키프는 1887년 11월 15일 미국의 위스콘신(Wisconsin)주 선프레이리(Sun prairie) 근처의 농장에

서 태어났다. 1905년부터 시카고의 예술대학에서 드로잉을 공부하였으며 1907년에는 뉴욕의 아트 스튜던트 리그(Art Student League)에서 아트저널을 통해 유럽 아방가르드 미술을 접하였고 정기적인 미술관 방문을 통해 유럽 모더니즘 화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미술사적 지식을 습득하였다(Kim, 2009). 1910년부터 1914년 사이 오키프는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의 「On the Spiritual in Art」와 아서 제롬 에디(Arthur Jerome Eddy)의 「Cubists and post-impressionism」를 접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읽은 이러한 서적들은 오키프의 유기적인 추상을 실험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1914년부터 1916년에 뉴욕의 교육대학에서 미술수업을 받는 동안 스승 아서 웨슬리 다우(Arthur Wesley Dow)로부터 화면을 아름답게 구성하는 ‘선·Notan·색’이라는 형식적 3요소와 ‘반대·변화·중속·반복·대칭’이라는 5가지 구성원리 및 동양사상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Lee, 2005).

오키프는 1915년 가을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위치한 컬럼비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육자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 시기에 제작된 목탄 드로잉 작업은 사범대 시절 절친한 친구였던 아니타 폴리처(Anita Pollitzer)에게 보내졌고 폴리처는 이 작품을 1916년 1월에 스티글리츠에게 보여주게 되었다(An, 2016). 스티글리츠는 미국의 현대미술의 탄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일찍 독일로 기술공학을 수학하러 갔다가 전공을 바꾸어 사진술을 익히게 되었고 소유를 경멸하는 낭만적인 무정부주의자였고 페미니스트였다(Yang, 2002). 스티글리츠의 ‘291화랑’은 국제적인 모더니즘 운동가들의 집결장소 역할을 하였고 스티글리츠는 오키프의 초기 추상작품에서 여성적인 특이함과 모더니즘을 인식하였으며 그녀의 작품에 나타난 독특한 형상들에 감명을 받고 ‘291화랑’에서 오키프에게 알리지 않고 첫 개인전을 열어주었으며 그녀의 든든한 후원인이 되었다. 스티글리츠가 사진작가로서 또한 사진운동

가로서 사진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세잔느가 미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이나 크다. 작품을 통해서 서로 인연을 맺었던 두 사람은 23년 나이차를 극복하고 1924년에 결혼을 하였다. 스티글리츠의 사진작업은 오키프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오키프의 작품에 나타나는 명확한 초점과 부분을 클로즈업하는 형식은 스티글리츠의 사진작업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Yang, 2002).

오키프가 스티글리츠의 권유로 뉴욕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여름은 주로 스티글리츠의 별장에 있는 조지 호수에서 보냈으며, 겨울은 뉴욕의 맨해튼에서 보냈다. 이 시기에 오키프는 작업 초년기에 획득한 구상과 추상의 기법을 이용한 유화작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오키프는 뉴욕에 거주하는 동안 1925년부터 마천루라는 새로운 소재를 채택하여 1929년까지 작품을 제작하였다. 1946년 스티글리츠가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3년 후인 1949년에 오키프는 뉴멕시코에 영구 정착하면서 광활한 사막, 대지, 협곡 같은 풍경을 비롯하여 해골과 단순한 건축물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다. 1951년부터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오키프는 1959년에는 3개월에 걸쳐 세계일주를 하기도 하였으며 이후에도 세계 각지로 여행을 다녔다. 1971년 시력이 급격히 약화된 오키프는 젊은 도예가 후앙 해밀턴(Juan Hamilton)의 격려로 도자기 작업을 이어 나가기기도 하였으며 1986년 뉴멕시코의 산타페에서 9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An, 2016).

III. 오키프의 시기별 작품이미지 변화

1. 초기(1915년~1921년)

오키프는 컬럼비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텍사스



Figure 1. 『Early No.2』, 1915.
Captured by the author from Library
Entertainment. (2008).



Figure 2. 『Special No.4』, 1915.
Captured by the author from Library
Entertainment. (2008).



Figure 3. 『Special No.15』, 1916.
Captured by the author from Library
Entertainment. (2008).

의 캐논 지방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동안 자신의 뉴욕 전시회, 미술서적 등에서 익힌 것들을 혼자서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1915년 가을부터 자신의 직관에 따라 단순한 추상적 형태를 그리기 시작하였는데 실험적으로 색채를 사용하지 않고 흰 종이 위에 검정색의 목탄을 사용하였다. 『Early No.2』 <Figure 1>, 『Special No.4』 <Figure 2> 등 작품들은 아르누보 화가들이 즐겨 사용한 모티브인 양식화된 고사리형태를 띠고 있다. 아서 도브(Arthur Dove)의 영향을 받은 오키프는 이처럼 단순한 하나의 유기적 형태로 대담한 화면을 구성하였다. 이 작품들은 반복성과 유기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비구상작업은 오키프의 작품에서 유기적 형태 이미지로서 발견되는 곡선들의 생명의 에너지를 암시, 내포하고 있다(Park, 2010). 오키프는 자연적인 형태들을 추상적 요소와 결합함으로써 자신의 예술세계에서 정점을 이루는 기하학적이고 유기적인 형태를 만들게 되었으며, 수십 년에 걸쳐 이 기법을 기초 특징적 형태로 작업하였다. 1916년에 팔로 듀로 캐니언(Palo Duro Canyon)에서 그린 『Special No.15』 <Figure 3>이라는 목탄 드로잉은 오키프가 초기의 관점을 넘어 보다 감정 이입된 화면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키프의 작품 속에서는 연속적인 선의 반복과 조화를 느낄 수 있는데 1917년에 그린 『Canyon with

crows』 <Figure 4>에서 볼 수 있듯이 캐니언과 장엄한 빛의 효과를 화려한 색과 겹쳐지는 반복된 선으로 집약했으며 이는 모티브에 대한 감정적인 해석을 강조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초기 작품에서 보여지는 전반적으로 자연주의적이지만 과장되고 강렬한 색채는 점차 오키프의 회화적인 표현 언어가 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키프는 1917년에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Chicago Art Institute)에서 작업했던 누드 연작을 통해 드로잉을 다시 시작하였으며 친구를 모델로 한 인체 드로잉 작품 『Nude Series VIII』 <Figure 5>는 로댕을 연상시킨다. 작품은 색채의 번짐과 겹침의 효과로 인해 인체에 운동감과 생동감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도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Jang, 2016). 이처럼 오키프의 작품생애 중 초기는 단순한 추상적 유기적인 형태의 형성으로부터 보다 감정이입이 되고 자신만의 독특한 회화적인 표현 언어를 형성해 나가는 시기였다.

2. 중기(1922년~1928년)

오키프의 작품은 1910년대의 비구상에서 시작하여 1920년대에는 점차 구상적 주제인 풍경, 꽃, 나뭇잎, 과일, 조개껍데기 등으로 옮겨갔다. 오키프는 스티글리츠 가족이 소유한 애디론덱 산맥(Adirondack Mountains)의 조지호(湖) 주변 저택에서 여름을 보내곤 하였는데 이곳은 오키프가 대부분 작품을 제작한



Figure 4. 『Canyon with crows』, 1917.
Captured by the author from Library
Entertainment. (2008).



Figure 5. 『Nude SeriesⅢ』, 1917.
Captured by the author from Library
Entertainment. (2008).



Figure 6. 『My Shanty, Lake George』, 1922.
Captured by the author from Library
Entertainment. (2008).

곳이기도 하였다. 조지호 주변의 풍경은 오키프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으며 점차 재현적인 세계에 관심을 돌리는 계기로 되었다. 오키프는 낡은 헛간을 작업실로 개조한 뒤 ‘오두막’이라고 불렀으며 1922년에 『My Shanty, Lake George』 <Figure 6>라는 작품을 그렸다(Kim, 2009).

오키프의 회화작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꽃을 묘사한 작품들이다. 그녀가 꽃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1918년부터였지만 확대된 형태로 표현한 것은 스티글리츠와 결혼한 1924년부터였으며 그 후 오키프는 200여점 이상의 꽃 그림을 그렸는데 장미, 페튜니아, 양귀비, 동백꽃, 해바라기, 금낭화, 수선화 같은 흔한 꽃들도 검은 붓꽃이나 이국적인 난과 같이 희귀한 꽃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1924년에 그린 『Red Canna』 <Figure 7>은 빨강, 주황, 노랑이 갖는 색채효과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충만하였다. 확대된 꽃잎이 부풀었다가 가늘어짐에 따라 그 형태는 색채와 에너지로 진동하는데 이 에너지는 작품의 V자형 구도에 의해 더욱 더 강조되어 나타났다. 페미니스트들은 오키프의 회화를 통해 여성성과 색슈얼리티의 여성적 표현을 증명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지만 오키프는 이에 대해 강하게 거부하였다(Lee, 2005).

1926년에 그린 『Black Iris』 <Figure 8>은 꽃을 주제로 한 오키프의 대표작으로 밝고 건강한 느낌

을 주는 붉은 칸나와는 대조적으로 투명하고 차가운 느낌을 준다. 아래 꽃잎의 짙은 색채로 인해 V자형이 뒤집어지게 안정된 삼각형의 구도를 취하였다. 화면의 구성은 위쪽의 밝은 꽃잎이 어두운 아래쪽 꽃잎과 대조를 이루며, 꽃잎들의 안쪽 윤곽선이 대각선의 곡선을 이루고 있다. 구성상 가장 밝은 부분을 이루고 있는 아치 형태의 중심부분은 안쪽의 밝은 꽃잎 부분을 향해 관통하는 문처럼 보인다.

1928년에 그린 『Two Calla Lilies on Pink』 <Figure 9>는 캔버스 전체가 두 송이의 꽃으로만 가득 차 있으며 꽃들은 확대되어 그려져 있고 잎과 줄기의 외곽선은 잘린 채 표현되었다(Kim, 2012). 오키프의 꽃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캔버스 가득 채우는 클로즈업 확대기법과 크롭드 테크닉(cropped technique)이라는 화면자르기 기법을 사용하여 배경과 모티브의 조화로 화면을 대칭 구도로 구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확대를 통해 꽃들은 자연 상태에서부터 벗어나 확장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형식은 스티글리츠의 사진작업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Kim, 2015).

이처럼 오키프 작품들 중 꽃들의 확대된 형태는 동일 모티브의 다양한 시점을 느낄 수 있으며, 꽃의 개별적 형태를 강조하여 구조를 상세히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는 혁명적이고 감각적인



Figure 7. 『Red Canna』, 1924.
Captured by the author from Library
Entertainment. (2008).



Figure 8. 『Black Iris』, 1926.
Captured by the author from Library
Entertainment. (2008).



Figure 9. 『Two Calla Lilies on Pink』, 1928.
Captured by the author from Library
Entertainment. (2008).

도입이며 꽃의 우아한 매력과 중앙에 위치시켜 모티프를 의인화하는 낭만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오키프는 꽃에서 보이는 단순한 아름다움보다는 우주의 생성, 즉 씨앗에서부터 시작했을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그 대상의 중심부를 확대함으로써 생명의 힘을 표현하고자 하였다(Byun, 2002).

오키프는 스티글리츠와 함께 1925년 렉싱턴 가(Lexington Avenue)에 위치한 셸튼(Shelton) 호텔의 30층으로 이사하면서부터 뉴욕 고층빌딩을 소재로 한 일련의 작품들을 제작하였다. 오키프는 언제나 그녀 가까이에 있는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을 작품에 반영했던 예술가였고 도시소재의 그림도 새로운 환경에 대한 그녀의 반응이었다. 1926년에 그린 『City Night』 <Figure 10>에서 오키프는 마천루를 그리면서 한대의 카메라로 동일한 장면을 올려다보는 것 같은 왜곡시점을 사용하였다. 열을 지어 수직으로 늘어선 마천루의 정면은 수직의 수렴이라는 효과를 통해 마름모의 형태로 변형되었다(Jang, 2016).

또한 오키프는 도시에서 그린 작품에서 빛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1926년에 그린 『The Shelton with Sunspots』 <Figure 11>에서는 도시를 비추는 눈부신 태양의 순간적인 빛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화면 상단의 호텔정면을 비추는

환한 빛과 화면에 불규칙하게 분포되어있는 햇빛의 반짝이는 인상은 더욱 강조되고, 부분적으로 투명함은 화면에 분위기를 보다 분명하게 더해준다. 이는 렌즈에 반사된 빛이 필름에 나타나는 현상을 만들어 주었으며 오키프는 사진에서 태양의 중심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커다란 광배효과를 잘 알고 있었다.

오키프는 빛으로 가득한 현대적인 뉴욕도시 맨해튼의 황홀한 밤의 광경을 화폭에 담았는데 1927년에 그린 『Radiator Building-Night, New York』 <Figure 12>는 사실상 자연의 빛이 사라지고 화려한 인공불빛이 창문에서 뿜어져 나오는 건물의 모습과 건물뒤편의 서치라이트 빛이 밝게 비추는 마천루를 묘사하였다. 이 작품에서 오키프는 어두움에 대비된 백색의 눈부신 패턴을 위주로 양식적인 면, 날카로운 가장자리, 엄격하게 도안된 형식, 엄격하게 채색된 표면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도시적 이미지는 점차 자연으로의 회귀를 암시하면서 상징적인 이미지로 전개되었다.

1927년부터 1928년 사이에 오키프는 셸튼 호텔에서 바라본 강의 모습을 담은 『East River From the Shelton』 <Figure 13> 연작을 통해 도시생활에서 오는 고독함을 표현하였다. 작품 속에 표현된 도시의 모습은 소란스러운 대도시일지라도 여전히 태양의 천연색의 섬광이 비추는 자연임을 나타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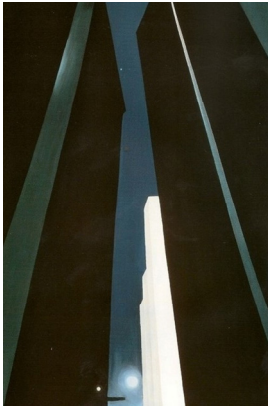


Figure 10. 『City Night』, 1926.
Captured by the author from Library
Entertainment. (2008).



Figure 11. 『The Shelton with Sunspots』,
1926.
Captured by the author from Library
Entertainment. (2008).



Figure 12. 『Radiator Building-Night, New York』, 1927.
Captured by the author from Library
Entertainment. (2008).

었다. 이것은 오키프가 비록 무색의 맨해튼에 있더라도 자연의 주제를 향한 열정은 계속되었음을 암시한다. 오키프는 삶과 자연의 가장 본질적인 구성 요소들에 이끌려 꾸준히 가시적인 세계의 추상적인 형태들을 탐구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환경에서 자신이 느끼고 싶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연으로 돌아가게 된다.

오키프의 작품생애 중 중기는 추상으로부터 점차 재현적인 세계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 시기이며 오키프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 꽃을 묘사한 작품이 대량 탄생된 시기였다. 또한 독특한 회화 구도인 캔버스를 가득 채우는 클로즈업 확대기법과 크롭드 테크닉 화면자르기 기법을 사용한 시기이며 마천루라는 소재를 그리는 과정 중 카메라의 빛을 이용한 촬영기법을 작품에 적용하여 혁신을 가져온 시기이다.

3. 말기(1929년~1965년)

1929년 오키프는 뉴멕시코에서 여름을 보낼 당시 광활한 대지와 이색적인 풍경에 매료되었다. 『The Lawrence Tree』 <Figure 14>는 그 시기에 그린 작품으로서 벤치에 누워 올려다본 소나무의 모

습을 그렸는데 나뭇가지 사이로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그려져 있다. 특히 형식구도는 일본미술의 한 특징이자 다우가 보급시킨 평면성을 잘 표현하였고 우측 하단에서 좌측 상단으로 대각선으로 향하고 있는 나무줄기는 회화적 요소를 단순화함으로써 보는 이의 시선을 별이 있는 하늘로 이끌기도 한다.

오키프는 뉴멕시코에 난잡하게 흩어져 있는 탈색된 동물의 뼈에 매혹되면서 1931년부터 동물의 뼈를 소재로 한 시리즈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사슴, 말, 노새 등 그녀가 사막에서 수집한 뼈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1931년에 그린 『Cow's Skull with Calico Roses』 <Figure 15>에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사막의 해골에 흰 장미가 키스하듯 부드럽게 얹힌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다. 이렇듯 오키프는 주제에 대한 장식적인 관심을 표현할 때 예상 밖의 물체를 병행하여 놀라운 의외성을 보여준다. 그 후 오키프의 작품에서는 고립된 동물의 뼈가 뉴멕시코의 풍경적 요소와 결합되어 사막풍경으로 구현되는 주제의 변화가 일어났다.

1937년 여름에 그린 『From the faraway Nearby』 <Figure 16>은 오키프가 대상과 대상의 거리를 더욱 강조하여 거대한 사슴뼈와 사막의 언덕 풍경을



Figure 13. 『East River From the Shelton』, 1927-1928.
Captured by the author from Library Entertainment. (2008).



Figure 14. 『The Lawrence Tree』, 1929.
Captured by the author from Library Entertainment.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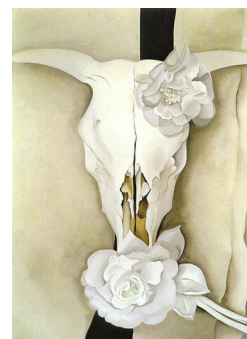


Figure 15. 『Cow's Skull wit Calico Roses』, 1931.
Captured by the author from Library Entertainment. (2008).



Figure 16. 『From the faraway Nearby』, 1937.
Captured by the author from Library Entertainment. (2008).



Figure 17. 『Pelvis with the Moon』, 1943.
Captured by the author from Library Entertainment. (2008).



Figure 18. 『Sky above Clouds III』, 1963.
Captured by the author from Library Entertainment. (2008).

겹침으로써 사슴이 화면 전체를 채우고 있으며 그로 인해 중간 영역이 사라짐을 알 수 있는데 이 작품의 구성은 환상에 가까운 초현실적인 성격을 띤다(Cho, 2008). 오키프는 이렇게 하얗게 탈색된 동물의 뼈에서 살아있는 동물에서보다 더 강력한 생명력을 느끼게 되었으며 생명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사막의 상징으로서 뼈의 모티브를 작품에 등장시켰다. 오키프는 동물의 요추(腰椎)를 모티브로 일련의 작품을 제작하였는데 1943년 그린 『Pelvis with the Moon』 <Figure 17>은 배경과 겹치지 않는 골반뼈의 형태가 은빛 밤하늘에 펼쳐져 화폭상단의 달과 교묘히 배치되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흰 뼈와 하늘의 청색을 통해 유한과 무한의 세계를 동시에 제시 하였다(Yang, 2002).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그녀는 세계여행을 다

니면서 오랫동안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며 내려다본 구상적 이미지들을 추상적 형태로 변형시켰다. 1963년에 그린 『Sky above Clouds III』 <Figure 18>은 공중의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 본 풍경을 표현한 것으로 이 작품은 색과 형태에 대한 화가의 고도로 된 개괄능력과 예민한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그 후 오키프의 작품들은 다양한 조합을 선보이며 점차 더욱 간략화 되었으며 현실과 유리된 환상적 표현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오키프의 작품생애 중 말기는 오키프가 주로 광활한 대지를 비롯한 이색적인 자연경관을 대상으로 작품활동을 한 시기이며, 작품의 형식구도는 일본미술의 특징이자 다우가 보급시킨 평면성을 실행한 시기이며, 점차 환상에 가까운 초현실적인 이미지들을 추상적인 형태로 변형시킨 시기이다.

IV. 오키프 작품의 조형적 특성

오키프는 미국 사실주의 회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면서도 추상적 특성을 지닌 독특한 작품영역을 개척하였다. 그녀의 작품이 묘사력과 평면성이 결합된 구상과 추상의 공존이라는 특성을 이루게 된 것에는 당시 오키프가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사진의 영향이 컸다. 그녀의 작품에 나타나는 명확한 초점과 부분을 클로즈업하는 형식은 스티글리츠의 사진작업으로부터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키프의 시기별 회화작품을 살펴본 결과 조형적 특성을 ‘확대성’, ‘반복성’, ‘대칭 및 균형성’, ‘평면성’, ‘색채표현’ 등 5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조형적 특성을 도출함에 있어서 Kim(2015)의 연구와 Yang(2002)의 연구 및 Hong(2003)의 연구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하였다.

다음 <Table1>은 오키프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1. 확대성

오키프 작품의 가장 대표적인 조형적 특성은 바로 ‘확대성’의 표현이다. 그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형태를 확대 표현하여 화면에 가득 채움으로써 사물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확대 표현된 대상으로는 주로 꽃을 위주로 하였으며 그밖에 조개, 돌, 짐승의 뼈 등 다양하다. 이처럼 작은 형태를 큰 화면에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그림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이색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단순한 형태의 한 부분이 또 다른 느낌과 의미를 주기도 한다. 오키프는 확대된 이미지의 자연물을 화면에 가득 채우는 과정에서 캔버스의 테두리에 의해 형태의 일부를 잘라서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기법은 사진기법 중의 하나인 화면을 자르는 기법과 유사하다. 1929년에 그린 『Grey Blue & Black - Pink Circle』

<Figure 19>에서 보이는 것처럼 오키프는 한층 두층 겹쳐지면서 소용돌이를 이루는 추상적 표현의 꽃 형상을 화면 앞에 바짝 다가오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현미경을 통하여 꽃의 내부를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이렇듯 오키프는 친숙한 자연대상의 확대를 통해 단독의 유기체를 뜻밖의 새로운 차원인 자연구조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의 발산인 소우주로 변화시켰다.

2. 반복성

오키프의 또 다른 조형적 특성은 바로 ‘반복성’의 표현이다. 그는 자연물을 표현함에 있어서 같은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도록 표현하였는데 그 반복적인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그것은 바로 ‘선’에 의한 반복성과 ‘소재(素材)’에 의한 반복성이다. 1927년에 그린 『Sea Weed』 <Figure 20>은 파도에 따라 흐느적거리며 물결치는 해초의 형상을 수없이 반복된 리드미컬한 곡선들로 생동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동적인 느낌을 주었다. 1963년에 그린 『Sky above Clouds III』 <Figure 18>은 비행기에서 바라본 수많은 구름의 형상을 반복적인 타원형의 이미지로 단순화하여 표현하였는데 이를 통해 자연물에 대한 애착과 미묘한 심리적 변화를 깊이 있게 표현하였다. 이렇듯 그녀의 작품들은 반복된 선이나 소재를 통하여 산맥, 수풀, 호수, 구름 등 자연경관을 음률에 따라 운동감 있게 표현해 내었으며 그림을 통해 자연의 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하였다.

3. 대칭 및 균형성

오키프의 작품에서는 화면의 구도를 추구함에 있어서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대칭 및 균형성’의 조형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대칭적인 구도를 표현한 작품으로 1918년에 그린 『Blue flowers』 <Figure 21>은 흰빛을 받고 있는 파랑색의 꽃을 중심으로 꽃

Table 1. 오키프 작품의 조형적 특성 구성 표.

조형성		작품	특성
확대성	꽃, 조개, 돌, 뼈 등 자연물	 <p>Figure 19. 『Grey Blue & Black - Pink Circle』, 1929.</p>	자연대상의 확대를 통해 단독의 유기체를 새로운 차원의 소우주로 변화시킴.
	선의 반복	 <p>Figure 20. 『Sea Weed』, 1929.</p>	불규칙적인 곡선을 통하여 음률에 따라 운동감을 나타냄.
반복성	형태의 반복	 <p>Figure 18. 『Sky above Clouds III』, 1963.</p>	자연의 이미지를 변형시키고 단순화하여 반복적으로 표현함.
대칭 및 균형성	좌우대칭	 <p>Figure 21. 『Blue flowers』, 1918.</p>	중심선의 좌우 또는 상하에 수평이나 수직으로 사물을 배치함으로써 시각적인 균형을 이룸.
	상하대칭	 <p>Figure 9. 『Two Calla Lilies on Pink』, 1928.</p>	
	V자형구도	 <p>Figure 7. 『Red Canna』, 1924.</p>	V자형구도를 사용하여 사물의 조형을 표현함으로써 시각적인 안정감을 추구함.
	나선형구도	 <p>Figure 22. 『The Shell No.1』, 1926.</p>	사물의 외곽선이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선형 형태를 이루면서 확산된 시각적인 균형감을 줌.

평면성	건물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을 사각형 또는 타원형 등 기하학적 패턴으로 변형시켜 평면화 함.
	풍경		
색채표현	유사색 혹은 인접색상		유사색 혹은 인접색상을 사용하여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을 추구함.
	보색대비		서로 대립하는 색상을 사용하여 주목성을 가지는 효과를 추구함.
	유채색과 무채색대비		
	무채색대비		

All pictures captured by the author from Library Entertainment. (2008).

잎 및 줄기의 형태가 완전히 똑같은 좌우수평으로 대칭되는 구도를 사용하였는데 화면에서 수평적 균형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28년에 그린 『Two Calla Lilies on Pink』 <Figure 9>는 넓고 평평한 두 개의 꽃잎을 비슷한 크기의 형태로 아래위부분에

배치하여 표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단조로움이 없는 상하 균형감을 나타내었다.

그밖에 오키프의 작품에는 ‘균형성’을 표현한 작품들이 많은데 주로 V자형구도와 나선형구도를 살펴볼 수 있다. 1924년에 그린 『Red Canna』 <Figure 7>은

V자형구도의 대표적인 작품인데, 화면의 하단부는 색채를 강하게 하고 상단부로 올라갈수록 점차 밝고 연하게 처리되었으며 꽃잎들의 조형은 위로 향하는 강한 상승감을 느낄 수 있게 표현하다. 또한 1926년에 그린 『The Shell No.1』 <Figure 22>는 매우 정교하게 다듬어진 조개껍데기의 외곽선들이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완벽한 나선형 형태를 이루면서 점차 확산됨을 볼 수 있는데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인 균형감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4. 평면성

오키프 작품의 또 다른 조형적 특성은 바로 ‘평면성’이다. 이는 오키프가 일본미술의 영향과 다음의 평면성이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풍경화를 그릴 때 주변건물의 선이 평면적인 화면을 분할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건물과 배경이 모두 화면을 구성하는 추상적 요소가 된다고 인지하였다. 오키프가 1926년에 그린 『Lake George Barns』 <Figure 23>에서는 사각형의 추상패턴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헛간을 정면에서 그림으로써 평면화하였으며 주변 풍경들의 세부묘사를 생략하고 헛간의 벽면과 지붕의 사각형태를 강조하였다. 또한 1963년에 그린 『Sky above Clouds III』 <Figure 18>에서는 수평선 구도로, 아래위로 양분화 된 화면을 구성하였으며 구름이라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단순하게 타원형이라는 기하학적 패턴으로 파악한 후 원근법의 공간을 무시하여 평면화 시켰다.

5. 색채표현

오키프의 작품 중 또 다른 조형적 특성은 바로 환상적인 ‘색채표현’이다. 그녀는 음악의 음률적 이미지를 꽃을 비롯한 자연물에 이입시켜 선명하면서도 엷은 톤의 물감으로 대상에 강약을 부여하였으며 이는 화면의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이미지를

더 강렬하게 뒷받침해 주었다. 색채표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주로 조화를 이루는 배색기법과 대비를 이루는 배색기법을 예로 들 수 있다. 우선 조화를 이루는 배색기법으로, 1929년에 그린 『Yellow Cactus』 <Figure 24>는 채도가 높지 않은 황색과 황록색을 사용하여 유사색상 혹은 인접색상 배색의 조화를 보여주어 전체적으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오키프 작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배색방법은 바로 대비색상의 사용방법이다. 1928년에 그린 『Single Lily with Red』 <Figure 25>는 붉은색 배경과 꽃잎의 녹색이 보색대비를 일으켜 화면 중앙의 꽃송이가 더욱 강조되어 보이게 하며 시선을 강탈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오키프가 사물을 표현함에 있어서 무채색과 유채색의 대비효과도 추구하였는데 1930년에 그린 『Black Hollyhock and Blue Larkspur』 <Figure 26>에서는 화면에 커다란 검은색의 접시꽃과 고채도의 파랑색의 작은 락스퍼를 함께 두어 극대화된 시각적 대비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밖에 오키프는 흰색을 비롯한 무채색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무채색의 강렬한 명도대비를 이용하여 사물을 강조하였다. 1926년에 그린 『Black Petunia and White Morning Glory I』 <Figure 27>은 유채색의 참여 없이 오로지 흰색과 검은색의 꽃송이를 화면에 가득 담아냄으로써 극도의 시각적인 대비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오키프는 항상 자연의 원초적인 진리를 자신만의 배색방법으로 화려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V. 작품 제작 및 해석

1. 작품 제작 의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오키프 작품의 조형적 특성인

‘확대성’, ‘반복성’, ‘대칭 및 균형성’, ‘평면성’, ‘색채 표현’을 패션디자인에 적용하여 수공예적인 요소를 위주로 현대복식을 디자인 및 제작하였다. 작품제작을 통해 의도한 것은 현대복식디자인에 있어서 독창성 및 개성을 지향하는 현대인의 감각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나아가 회화와 패션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새로운 디자인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를 두었다.

작품제작과정에 있어서 모든 작품에 모직물소재를 주소재로 사용하였으며 표현하고자 하는 문양을 회화작품모티브의 재해석을 통해 새롭게 문양을 구성하고 섬유펠트기법, 손자수기법, 코바늘 뜨기법 등을 사용하여 독특한 수공예적인 분위기를 나타내었다. 색채는 대비색상사용과 유사색상사용기법을 위주로 강렬한 색채대비효과와 자연스러운 색채조화기법을 활용하였다.

디자인결과는 <Table 2>에 정리하였으며 작품 결과물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2. 작품해설

1) 작품 I

작품 I은 오키프 작품의 조형적 특성인 ‘확대성’ 표현을 위해 1929년에 그린 『Grey Blue & Black - Pink Circle』 <Figure 19>를 모티브로 디자인하였다(Figure 28). 회화작품에서는 여러 겹의 꽃잎모양이 화면의 중심으로 소용돌이치듯 움직이는 방향성을 확대 표현 하였는데, 이러한 느낌을 패션디자인에 적용하고자 나선형의 문양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원피스의 앞 중심 부분에 집중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제작에 있어서 100% 양모털실을 이용하여 코바늘뜨기 기법으로 길이 약 300cm, 넓이 약 4cm 크기의 러플을 제작한 후 중심으로부터 외형에 이르기까지 나선형으로 둘러서 조형을 만들어주고 꽃술로 장식하였다. 확대된 형태의 모티브이미지의 강조를 위해 원피스 앞 중심 부분에 조형물을 부착하였으며 강렬한 보색대비효

과를 위해 일본DIC주식회사칼라가이드북 第13版의 색채를 참고로, 그 중 98번 파랑색을 응용한 중심조형과 보색대비를 이루도록 204번 오렌지색을 응용한 섬유로 바탕을 이루도록 섬유펠트기법으로 작업하였다(Figure 32), (Figure 33), (Figure 34).

2) 작품 II

작품 II는 오키프 작품의 조형적 특성인 ‘반복성’ 표현을 위해 1927년에 그린 『Sea Weed』 <Figure 20>를 모티브로 디자인하였다(Figure 29). 회화작품에서 표현된 수없이 반복되며 물결치는 리드미컬한 해초의 형상을 불규칙적인 곡선들로 재해석한 후 코트의 앞부분에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작품제작에 있어서 100% 양모털실을 이용하여 아우트라인 스티치(outline stitch), 체인 스티치(chain stitch), 프렌치 노트 스티치(French knot stitch) 등 손자수기법과 섬유펠트기법작업으로 재킷의 오른쪽 앞가슴 판 및 왼쪽 주머니에 균형을 이루는 구도로 모티브이미지의 리드미컬한 곡선을 재조합 하여 수놓았으며 섬유펠트 기법작업으로 부분 장식을 하였다. 색채는 일본DIC 주식회사칼라가이드북 第13版의 색채를 참고로, 222번 청색과 87번 노랑색을 위주로 기타 혼합색을 사용하여 대비색대비를 이루도록 강렬하면서도 조화로운 분위기를 표현하였다(Figure 35), (Figure 36), (Figure 37).

3) 작품 III

작품 III은 오키프 작품의 조형적 특성인 ‘대칭 및 균형성’ 표현을 위해 1918년에 그린 『Blue flowers』 <Figure 21>을 모티브로 회화작품에서 나타난 꽃잎 및 줄기의 형태가 완전히 똑같은 좌우수평으로 대칭되는 꽃모양을 더욱 간략화 된 도안으로 표현하여 디자인하였다(Figure 30). 작품제작에 있어서 100% 양모털실을 이용하여 간략화 한 문양의 윤곽형태를 러닝 스티치(running stitch)를 통해 손자수기법으로 완성한 후 100% 양모섬유를 이용하여 코트의 앞 중

Table 2. 디자인 결과표.











분류	모티브이미지	조형적 특성	디자인 변형	색채	도식화
작품 I	 Figure 19. 『Grey Blue & Black - Pink Circle』, 1929.	확대성		 보색대비	 Figure 28. 작품 I 의 도식화.
작품 II	 Figure 20. 『Sea Weed』, 1929.	반복성		 대비색 대비	 Figure 29. 작품 II 의 도식화.
작품 III	 Figure 21. 『Blue flowers』, 1918.	대칭 및 균형성		 무채색 대비	 Figure 30. 작품 III 의 도식화.
작품 IV	 Figure 18. 『Sky above Clouds III』, 1963.	평면성		 유사색 배합	 Figure 31. 작품 IV 의 도식화.

Figure 28-31 photographed by the author. (December 30, 2017).

심부분에 섬유펠트기법으로 꽃의 문양을 가득 채워 표현하였다.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검정색과 흰색의 무채색대비의 색채효과를 나타내었다(Figure 38), (Figure 39), (Figure 40).

4) 작품 IV

작품 IV는 오키프 회화의 조형적 특성인 ‘평면성’ 표현을 위해 1963년에 그린 『Sky above Clouds III』 <Figure 18>을 모티브로 디자인하였다(Figure 31).

Table 3. 오키프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분류	작품실물사진 (앞면)	작품실물사진 (뒷면)	국부사진	작품설명	조형적 특성
작품 I	 Figure 32. 앞면 I.	 Figure 33. 뒷면 I.	 Figure 34. 국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바늘뜨기방법을 통한 러플로 시각중심에 확대된 원형조형을 만들어 확대성 표현 - 섬유펠트기법으로 오렌지색의 바탕을 만들어 파랑색의 원형과 보색대비 표현 	확대성
작품 II	 Figure 35. 앞면 II.	 Figure 36. 뒷면 II.	 Figure 37. 국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자수 기법으로 다양한 곡선 표현 - 섬유펠트기법으로 장식성 추구 - 파랑색과 노랑색 곡선의 사용으로 대비색 대비강조 	반복성
작품 III	 Figure 38. 앞면 III.	 Figure 39. 뒷면 III.	 Figure 40. 국부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자수 기법을 통한 대칭되는 문양윤곽선형성 - 섬유펠트기법을 통한 문양형성 - 검은색과 흰색의 사용으로 무채색대비강조 	대칭 및 균형성
작품 IV	 Figure 41. 앞면 IV.	 Figure 42. 뒷면 IV.	 Figure 43. 국부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펠트기법을 통한 타원형 배열 및 형상으로 평면성 강조 - 서로 다른 명도의 파랑색 계열 유사색상사용으로 문양의 형식미를 추구 	평면성

Figure 32-43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30, 2018).

회화작품에 나타난 구름이라는 자연물의 형상을 단순한 타원형의 기하학적 패턴으로 재조합한 후 코트의 앞부분에 표현하였다. 작품제작에 있어서 100% 양모섬유를 이용하여 코트의 오른쪽 앞가슴부분과 왼쪽 허리부분에 섬유펠트기법을 통해 불규칙적인 타원형의 문양을 나타내었다. 문양의 조화로운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 색채는 일본DIC주식회사칼라가이드북 第13版의 색채를 참고로, 220번 파랑색의 주 색채에 회색의 털실을 섞어서 여러 타원형에 부동한 명도의 변화를 주었으며 모티브에서 보이는 파랑색 하늘의 흰구름과는 반대로 아이보리색의 흰 바탕에 부드럽게 조화를 이루는 색채표현을 진행하였다 (Figure 41), (Figure 42), (Figure 43).

VI. 결 론

본 연구는 20세기 초 미국의 모더니스트이자 페미니시스트의 대표적인 화가 오키프의 작품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확대성’, ‘반복성’, ‘대칭 및 균형성’, ‘평면성’, ‘색채표현’ 등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들을 패션디자인에 적용하여 창의적인 패션디자인 개발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키프 작품에 나타난 ‘확대성’의 조형적 특성은 객관적 사물의 형태를 확대 표현하여 화면에 가득 채움으로써 사물의 특징을 부각시켰는데, 이러한 특성을 패션디자인에 적용함에 있어서 모티브의 이미지를 의상의 앞 중심부분에 집중적으로 확대 표현하여 시각적인 형식미를 추구하였다.

둘째, 오키프 작품에 나타난 ‘반복성’의 조형적 특성은 객관적 사물에서 나타나는 요소를 곡선이나 기하학적 조형으로 변형시키고 단순화하여 한 화면에 반복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특성을 패션디자인에 적용함에 있어서 모티브의 이미지를 반복된 곡선으로 재조합 하여 의상에 표현함으로

써 자유분방한 시각적인 효과를 추구하였다.

셋째, 오키프 작품에 나타난 ‘대칭 및 균형성’의 조형적 특성은 수평적 균형과 수직적 균형 또는 V자형구도나 나선형구도를 사용하여 시선이 중심이 되는 선의 방향에 따라 시각적인 안정감을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특성을 패션디자인에 적용함에 있어서 모티브의 이미지를 단순한 조형으로 재조합한 후 의상의 앞중심 부분에 좌우 수직적 대칭으로 표현하여 시각적인 안정감을 추구하였다.

넷째, 오키프의 작품에 나타난 ‘평면성’의 조형적 특성은 주변 풍경들의 세부묘사를 생략하거나 원근법 공간을 무시하고 기하학적 조형으로 단순화시켜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특성을 패션디자인에 적용함에 있어서 모티브의 이미지를 불규칙적인 기하학적 도형으로 단순화하여 의상의 여러 면에 평면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시각적인 형식미를 추구하였다.

다섯째, 오키프의 작품에 나타난 ‘색채표현’의 조형적 특성은 음악의 음률적 이미지를 자연물에 이입시켜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색채를 표현하였으며 주로 조화를 이루는 배색기법과 대비를 이루는 배색기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색채의 특성을 패션디자인에 적용함에 있어서 인접색상배색, 보색대비, 대비색대비, 무채색대비 등 기법을 사용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추구하였다.

모든 디자인작품에 있어서 모직물소재를 주소재로 사용하였고 모티브 특성의 표현을 위해 손자수기법, 코바늘뜨기법, 섬유펠트기법을 사용하여 작품의 구성을 다양화 하였다.

References

- Ahn, H. R. (1995). *Georgia O'Keeffe's paintings and modern photography: Focusing on her works of the 1920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An, S. H. (2016). *Research about Georgia O'keeffe's (1887-1986) New York city landscape paint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Byun, B. Y. (2002). *The connection characteristic research of work analysis and person oneself work and of Georgia O'keeffe painting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University of Suwon, Hwaseong.
- Cho, J. H. (2008). *A study on formative work through organic image by Georgia O'keef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University of Suwon, Hwaseong.
- Hong, J. S. (2003). *An argument about Georgia O'keef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Jang, E. J. (2016). *Applied nail design,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orgia O'Keeffe work*.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ung University, Seoul.
- Kim, H. S., & Kang, I. A. (2004). Floral image make-up: Centered on Georgia O'Keeffe's painting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11), 97-107.
- Kim, H. Y. (2015). *The study of knitwear designs inspired by flower images in Georgia O'keeffe painting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M. G. (2017). *(A) study on the Kinfolk style wedding hair accessories designs: Focusing on flower- images in the paintings of Gorgia O'Keeff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 Kim, P. G. (2012). *101 인의 서양화가* [Western famous paintings 101]. Seoul: Maroniebooks.
- Kim, S. H. (2009). *A study on process of organic image of Georgia O'keeffe's work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 Lee, S. I. (2005). *A study of dualistic tendency of nature in Georgia O'keeffe paint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Library Entertainment. (2008). *Great women artists* [CD-ROM]. Seoul: ㈜대경DVD.
- Park, J. S. (2010). *A study of organic images and the transferring into the painterly formation in 1980'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 Yang, E. J. (2002). *The study on Georgia O'keeffe painting's life im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Development of Fashion Design Based 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Georgia O’Keeffe’s Paintings

Lin, Hui Shun⁺ · Dong, Fei

Professor, Dept. of Fashion & Design, Yanbian University⁺
Master’s course, Dept. of Fine Arts, Yanbian University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fashion design with added value as handcraft by applying designs inspired by art paintings in accordance with the increased interest in culture due to the recent trend towards value conscious consumption among modern people. The process of this paper is to achieve new style of fashion design by combining two different part which involve art and fashion. And this attempt is shown in four sets of products made in the paper which referenced to the paintings of Georgia O’Keeffe(a modernist from the United States in 20th century) after summarizing her theoretically discussed artistic career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in different stages. And the design incorporated the features like amplification, repeatability, symmetry, balance, planarity and color using from O’Keeffes’ paintings. During the design process of all the costumes, we summarized the scene of flowers and sceneries into vortex lines, irregular curves and irregular ovals in order to present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in paintings. The expression in the design process is a re-interpretative image of the painting as an abstract circular pattern, and the symmetrical image of the painting is reflected in the vertical center. In decorating process, we transformed the wool fabric into modern garments and reproduced new patterns of the products by felting, embroidery and crocheting. The use of color was made references to the formative characteristic which is the style of contrasting colors and similar color by O’Keeff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fashion design works that face with the aesthetic needs of modern people through the development of creative fashion design and the formation of a consensus of painting and fashion.

Key words : Georgia O’Keeffe, formative characteristics, fashion design